

야권연대 “약발 확실”...민주 제1당 꿈

정권심판론 내세워 총선 압승 전략 통합진보 교섭단체 가능 최대 수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19일 새누리당과의 대역(對興)전선 단일 대오를 구축하며 4·11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양당은 이날 연대 성과로 바탕으로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서 압승하겠다는 전략이다.

◇여당과 대등한 지지율=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3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1주일 전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한 39.4%였다. 우연히도 민주통합당(33.7%)과 통합진보당(5.7%)의 합산 지지율(39.4%)과 동률이다. 이 여론조사는 경선 결과 발표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야권의 기대를 더욱 부풀게 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민주당 제1당 되나=민주당은 야권연대 협상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한 몫을 내줬지만 후보단일화를 통해 남은 지역구의 승리 가능성을 키움으로써 제1당의 꿈에 한발 다가갔다.

예초 민주당은 과반 의석까지 내다 보았으나 공천 과정에서 잇단 잡음으로 130석도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왔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바짝 추격하는 양상을 띠면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 지역도

크게 늘었다. 민주당은 단일화 경선에서 단순 수치상으로는 통합진보당에 비해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그럼에도, 야권의 교섭표 이탈과 사표를 막음으로써 새누리당과 경합지역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을 키웠다.

또 야권연대 타결을 통해 야권 지지층의 결집도 강해지면서 지역구뿐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득표율도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력을 가진 민주당 후보들이 탈락한 것은 아쉽지만, 후보단일화를 통해 우리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야권과 시민사회는 야권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합진보당 최대 수혜자=이번 경선의 최대 수혜자는 통합진보당으로 평가된다. 예상보다 많은 11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양보지역인 15곳과 앞으로 치러질 8곳의 경선 결과 등을 포함하면 모두



이해찬 세종시 출마 민주당 통합당 이해찬 상임고문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종시 출마를 선언한 후 한명숙 대표, 문성근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30곳 정도에서 단일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원인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에 한발 다가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무공천하기로 한 경기 성남 중원(윤원석), 의정부(홍희덕), 파주(김영대), 인천 남구갑(김성진) 등 4곳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만 10곳 가까이 단일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 단일후보 경선 간판급 후보들 승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19일 공동으로 발표한 야권 단일후보 경선 결과, 양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대부분 승리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거나 조직력이 강한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야권 대선주자인 민주당 정세균 상임고문과 정동영 상임고문은 서울 종로와 서울 강남구에서 승리했고,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통합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용선(서울 양천구) 후보도 공천권을 따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간판급 선수’들이 대부분 승리했다. 최대 접전지였던 서울 관악구에서 이정희 대표가 관악구청장 출신의 현역의원인 김희철 의원을 눌렀고 심상정(경기 고양 덕양갑) 대표, 노회찬(서울 노원구 병) 대변인, 참여정부 후보수석 출신의 천호선(서울 은평을) 대변인도 모두 승리했다.

울산 북구에서는 울산동구청장을 지낸 김장현 후보가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후보자로 확정됐고, 경남 창

원갑의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경남지역 자체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가 됐다. 다만, 울산 남구갑에서 현역인 조승수 의원이 민주당 삼구병 후보에게 패한 것은 ‘이변’으로 꼽힌다.

민주당 전략공천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이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인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 인제근(서울 도봉갑) 후보는 참여정부 후보수석 출신의 이백만 후보를 눌렀고, 이인주(경기 광명을) 변호사, 이학영(경기 군포시) 전 YMCA 사무처장, 임지아(서울 서초을) 변호사도 후보자로 확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떡 줄 사람 한테 물어는 봤나?!

출마 수순 밟는 박주선

지지자들 잇단 요구에 동구 무소속 준비

‘투신자살 사건’으로 인해 민주통합당 무공천 지역이 된 광주 동구에서 현역인 박주선 의원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주변도 무소속 출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박원 전 광주시의회의장 등 광주·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206명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교체와 호남정치 부활,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박주선 의원의 총선 출마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투신자살한 전직 계림 1동 당장의 아들인 조모씨는 “아버지 죽음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박 의원

이 반드시 출마해 꼭 당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 소속 손재홍·김영우 광주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과 13개 동협의회장, 고문단 등 주요 당직자들도 박 의원의 출마를 촉구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를 박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의 경우 후보와 연관성 여부를 떠나 후보가 불출마하게 되면 관련자들의 처벌수위가 낮아



진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광주 동구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현

재까지 현직 구의원과 통장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특히 검찰 수사가 동구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또 지난 7일 유태명 동구청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음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박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건이다. “3번 구속 3번 무죄”의 역경과 고난을 헤쳐온 박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용퇴한 5선 김영진

광주·전남 공천 탈락 현역 중 첫 총선 불출마

5선의 민주통합당 김영진(광주 서구 을) 의원이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광주·전남지역 공천 탈락 현역 의원 4명 중 총선 불출마 선언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원칙한 공천심사 결과를 용납할 수 없어 무소속 출마를 거듭 고려했지만, 책임 있는 중진의원으로서 당을 버릴 수 없고 후보 정치인들의 길을 열어주고자 심사숙고 끝에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등의 강력한 출마 촉구에도 불출마를 선택하게 된 것은 야권의 분열을 우려해서다”고 강조했다.

1988년 4·26 총선 당시 김대중 총재에 의해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70~80년대 한국 기독교청년협의회 전국회장과 민주쟁취국민운동 광주·전남 공동의장 등으로 활동 중 유신반대와 5·18 민주화운동 참여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그는 국회에 등원한 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로 활약하며, 농어민을 대변해왔다. 평가 받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광주 과학벨트 유치의 주역으로 굽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아낌없이 저를 버리고 12월 대선승리와 정권교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깨끗한 승복 김명진

남구 경선 패배 후에도 출근길 유권자에 인사

민주통합당 광주 남구의 김명진 예비후보가 경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벽 출근 인사를 계속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19일 “지난해 12월 13일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한 백운동 로타리 새벽 출근인사를 오는 21일 100일째로 끝내면서 선거운동을 마무리 할 생

각”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주변에서 ‘경선에서 패배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만류했지만 성원해주신 지역민에 감사를 표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각오로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승자인 장병완 의원에게 축하 난 화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결국 ‘진심은 통한다’



는 평범한 진리를 토대로 주어진 길을 뚜벅 뚜벅 걸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겨울,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던 새벽에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건네주던 캔 커피의 따뜻함을 잊지 않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소기업 성공 징검다리 제6기 CEO 명품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기관	장 소	개강일	교육일정	정 원
실전경영	호남연수원	광 주	2012.04.14	격주토요일 9:00~17:00 (총 70시간, 10주)	40명 내외

교육과정

- 실전경영 : 마케팅-영업, 생산-품질관리, 자금 및 인력지원, 정부지원 정책 활용 등

교육신청

- 대 상 :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CEO 또는 임원 (가업승계자 포함 / 정원의 30%범위 내 일반기업 CEO 및 임원 참가 가능)
- 교육비용 : 150만원 *수료시 50~100만원을 환급해드립니다

참가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062-250-3000 홈페이지 http://gjti.sbc.or.kr

중소기업청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